

오피니언

월/요/광/장

고영을



요즘은 뉴스 보기가 겁이 난다. 효가 땅에 떨어져 부모님을 폭행하고, 심지어 정신병원에 가두거나 살인을 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보도된다. 우리의 효 사상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알 수가 없다.

400년 전에 살다 간 송강 정철은 정치인이지만 사미인곡, 성산별곡 등을 남긴 가사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이기도 하다. 식영정, 환벽당, 송강정 등에는 송강의 자취가 고스란히 남아있다. 이곳을 다니다 보면 프랑스 파리 몽마르트 언덕이 생각난다. 그곳에는 빈센트 반고흐, 피카소가 그림을 그렸던 작업실 등이 있는데 몽마르트는 프랑스 파리의 대표적인 관광지이다. 과거 유명한 화가들 덕에 그곳은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

자 뿌리다. 우리나라에 고려장이 있었는데, 경로사상을 교육 시키고자 만든 말이 라고 한다. 어느 정승 어머니도 연세가 들어 고려장의 대상이었는데 차마 버리지 못하고 마루 밑에 숨겨 놓았다고 한다. 어느 날 아들의 표정이 어두워 물었더니 "중국 사신이 똑같이 생긴 말 두 필을 가져와 어머니와 새끼를 구별하지 못하면 자기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어야 한다며 횡포를 부렸는데 참으로 걱정입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그것처럼 간단한 것이 없는데 걱정하지 마라, 두 마리 말을 며칠 굶긴 뒤 여물을 앞에 놓으면 허겁지겁

먹는 것이 새끼다" 이는 노인의 지혜를 보는 한 예에 불과하다. 노인들의 지혜는 무궁무진하다. 어느 연구조사기관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 노인들의 머리가 훨씬 좋다고 했다. 노인 장들은 우리의 미래이다. 부모님은 물론 다른 노인장들에게도 따뜻한 눈길, 따뜻한 말 한마디와 배려하는 마음의 여유를 가졌으면 한다. 새해가 되면 언제나 이웃들과 덕담을 나눈다. 더러는 작심삼일이 된 분들도 있겠지만, 현재도 초심을 지켜 가고 있는 이들이 많을 걸로 안다. 그런 분들이 있기에 우리 사회는 잘 굴러간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기본 좋은 말로 격려를 나누면 훨씬 밝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복을 받기 전에 복을 짓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남에게 베풀 생각은 하지 않고 나만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마치 나무 밑에서 복 토끼를 기다리며 요행수를 바라는 것과 같다. 악업 가운데 제일 짓기 쉬운 것이 입으로 짓는 구입이라고 한다. 우리 생활을 돌이켜 보면 말이 씨가 되어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다. 불가에서도 사람이 짓는 열 가지 업 가운데 입으로 짓는 구입을 네 가

지나 두고 있다. 거짓말을 하는 망어,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양설, 남을 헐뜯는 악구, 곱게 꾸며서 말하는 거어가 그것이다. 그 가운데 거짓말을 하거나 이간질하거나 욕설을 하는 구입은 뻔히 드러나기 때문에 티가 나지만 곱게 꾸며서 말하는 것은 잘 드러나지 않아서 자기도 모르게 짓게 된다. 교묘하게 꾸며서 비단같이 곱게 말하는 것은 내놓고 하는 거짓말보다도 더 나쁘다고 할 수가 있다. 말은 진실을 담아 바르고 쉽게 해야 한다. 학교에서도 말하면 배도록 교육이 되어야 하고 가정에서도 밥상머리에 가족끼리 진실되고 고운 말로 대화를 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 엄한 부모 밑에서 효자가 난다고 했다. 가정교육은 정말 중요하다. 가정은 효를 몸매 배도록 교육시키는 곳이다. 밝은 얼굴 그 자체가 효라고 한다. 공손한 말 한마디도 효이다. 효성이 지극한 사람들은 다른 어르신들도 공경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경로사상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학교에서도 잘 가르쳐야 한다. 조상님들의 가르침을 새기면서 불경한 구절을 소개할까 한다. 사람스럽고 예쁜 꽃이/ 빗팔도 곱고 향기가 있듯이/ 아름다운 말을 바르게 하면/ 반드시 좋은 복이 오리라. <고구려대학 이사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과학벨트 전략적 심사 결과 수용할 수 없다

정부가 과학벨트를 대전에 설치하는 방안을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중으로 발표될 과학벨트 최종 입지로 대전 대덕 특구가 선정돼 이곳에 '중이온 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 등 핵심 시설과 기관이 입주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과학벨트 심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 광주가 탈락해서가 아니다. 특정지역을 염두에 둔 짜맞추기식 심사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학벨트 입지 평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했다. 우선 과학벨트 입지 여건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지반 안정성과 부지확보 용이성 등이 심사기준에서 제외되거나 후순위로 밀려났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보듯이 주요 국가시설의 입지선정에서 지반 안정성은 필수다. 국가 백년대계 사업인 과학벨트의 핵심시설인 '중이온 가속기'가 설치되는데 지반 안정성이 세부평가지표에서 제외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또한, 부지 확보 용이성에서 유리한 광주 평동 혼련장 이전 부지를 후보지에 아예 포함하지 않은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이는 광주를 탈락시키기 위한 음모로 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과학벨트위원회가 국제공항 접근성과 전국 시·군 간 거리 등을 주요 심사기준으로 삼은 것도 공정하지 못하다. 이는 수도권과 가까운 특정 지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정지역을 염두에 둔 너무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심사였음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다. 이렇 바엔 무엇 때문에 입지 공모를 했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정부는 이런 짜맞추기식 심사로 과학벨트 입지를 결정할 경우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기존의 입지 평가 기준을 전면 철회하고 공정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입지 선정이 다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영산강 사업' 장마철 안전대책 서둘러야

4대강 공사현장 곳곳에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낙동강 공사 구간인 경북 구미의 광역취수장 임시 물막이 지지 8일 무너진 데 이어 11일에는 영산강 6공구 승천보에서 준설공사로 노출된 수도관로가 파손돼 인근 마을에 15시간 동안 수도를 공급이 중단됐다. 이날 사고는 준설공사 중에 강바닥에 매설된 수도관이 강물에 노출되면서 불어난 물에 파손된 것으로 보인다. 사전에 많은 비가 예보됐지만 현장 관계자들이 적절한 보강공사 등을 외면해 발생한 것이다. 사고 현장을 찾아 실태조사에 나선 민주당 김진에 의원은 "이번 사고는 이 설을 위해 강물에 노출시켜 놓은 상수관로 2개가 수압을 견디지 못해 파손된 것"이라며 "비가 오지 않은 건기에 이미 수도관 등을 깊게 이설해야 하지 만 공사 관계자들의 안일한 생각 탓에 화를 키운 예견된 사고"라고 지적했다.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이라는 얘기도

100mm의 비에 공사현장이 가뭄막이가 무너지고 수도관이 파손될 정도로 허술한 상향에 집중호우라도 내리면 무수 사고가 터질지 모를 일이다. 장마철을 앞두고 걱정이 앞서는 이유다. 만일 오페수도관로가 파손돼 인근 마을에 15시간 동안 수도를 공급이 중단됐다. 이날 사고는 준설공사 중에 강바닥에 매설된 수도관이 강물에 노출되면서 불어난 물에 파손된 것으로 보인다. 사전에 많은 비가 예보됐지만 현장 관계자들이 적절한 보강공사 등을 외면해 발생한 것이다. 사고 현장을 찾아 실태조사에 나선 민주당 김진에 의원은 "이번 사고는 이 설을 위해 강물에 노출시켜 놓은 상수관로 2개가 수압을 견디지 못해 파손된 것"이라며 "비가 오지 않은 건기에 이미 수도관 등을 깊게 이설해야 하지 만 공사 관계자들의 안일한 생각 탓에 화를 키운 예견된 사고"라고 지적했다.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이라는 얘기도

법조칼럼



오수원

거래를 하면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익숙하지 못한 탓일까? 이 때문인지 뒷날 다툼이 생겨 법정에서 오게 되면 재판은 오로지 증인의 증언에 의존하게 된다. 하지만,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명확하고 정확한 증언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상대방은 증인이 위증을 했다고 분개한다. 이 같은 상황이 사건 회피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때 모든 증인이 고의로 위증을 했다고 볼 수

는 없다. 심수 년 전, 필자가 자동차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필기시험을 준비하면서 문제집을 풀던 때의 일이다. 여러 문제 중 자가용 자동차 번호판의 색깔을 묻는 하나의 문항이 있었다. 그런데 하루에도 수차례 자가용을 타고 내리는 필자는 자가용 번호판의 색깔이 전혀 생각나지 않았다. 한참 동안 골몰히 생각했지만,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다. 사람의 기억력에 관한 재미있는 심리실험 내용이 있다. '선택적 관심 실험'(Selective Attention Test)이라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1999년 미국의 대니얼 사이먼스와 크리스토퍼 차브리스가 한 '보이지 않는 고릴라'(invisible gorilla)라는 실험이다. 검은 옷을 입은 3명과 흰 옷을 입은 3명 등 모두 6명이 3명씩 2팀으로 나눠 자기 팀

증인의 기억력

끼리 공을 패스하는 비디오를 실험을 참가자들에게 보여줬다. 그리고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몇 차례 패스를 했는데 세도록 했다. 정답은 16회였다. 경기자들이 공을 패스하는 잠깐 사이에 고릴라 모습의 한 사람이 무대 오른쪽에서 경기자들 사이로 천천히 걸어와 잠깐 멈춘 뒤 앞을 보고 가슴을 몇 번 두드리고는 반대방향으로 퇴장한다. 또 본래의 질문이 바뀌어 실험참가자들에게 '고릴라를 보았는지'(Did you spot the gorilla)를 물었다. 그 결과 이 비디오를 보았거나 들은 적이 없는 사람들의 약 절반이 고릴라를 알아채지 못했다고 한다. 문제는 일부러 하는 거짓증언이다. 최근 처 아저씨 등 6인의 증기회사 지입차주들이 지입증기 회사에 증기를 구입해주도록 의뢰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증기회사가 지입차주들로부터 받은 돈과 차량판매회사

에 지급한 대금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다. 처 아저씨 등의 의뢰를 받고 증기회사를 상대로 그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증기회사에서는 그 돈은 모두 지급했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회사의 업무담당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증거조사가 시행되던 날, 그 업무담당자는 한 통치의 파일을 들고 나와 선서하고 증인석에 앉았다. 그는 판사의 물음에 파일을 이리저리 훑으면서 날짜까지 들어가면서 그 돈들은 다 갚았다고 증언하였다. 소송의 결과는 처 아저씨 일행의 완패였다. 처 아저씨 일행이 그대로 있을 리 없었다. 후에 전해들은 바로는 이들이 증인을 고소하겠다고 하자 회사에서는 승소하였음에도 지입차주 모두에게 차액을 돌려주었다고 한다. 증인의 증언은 진실을 이야기해도 그 자체로 부정확한 것일 수밖에 없다. 부정확한 증인의 증언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 부정확한 증언이 그렇듯 진실하지 못한 증언은 더 위험하다. 증인의 입에 의존하는 재판을 피해야 할 이유이다. <광주지방변호사회 변호사>

기고



정명호

의료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첨단 의료가 기가 속속 도입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도 점차 발전하고 있다. 여기에 KTX가 완공될 경우 광주·전남과 수도권 의료기관들과의 경쟁은 더욱 불가피하다. 하지만 대학병원들은 아직 이 같은 전반적인 기류에 둔감한 면이 있다. 대기실에는 항상 줄 서있는 환자들이 있고, 병실은 넘쳐나는 환자들로 부쩍하기 때문이다. 대구가 KTX 완공 이후 수도권으로 환자 유출이 심화할 것에서 보듯 우리도 마냥 현상만 유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대학병원은 일반 병원과 엄격히 분리되는 중요한 기능과 책무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기능은 역시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대학병원

대학병원의 미래와 기능

은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한 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대학병원에 근무를 하게 되면 개인하는 경우보다 경제적·시간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는 많은 젊은 의사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문의의 길을 택해 임상교수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매우 희망적이다. 필자도 1987년도에 내과전문의 취득한 후에 2년 동안 무급으로 대학병원에서 전임의로 근무했다. 여러 면에서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그때가 꿈을 가졌던 행복했던 시절이었다. 임상경험이 많은 의사와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빠르고 편리하게 진단할 수 있는 최첨단 치료 장비도 필요하다. 훌륭한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등의 의료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잘 짜인 교육과정 이 필요하고 교육 시설도 필요하다. 임상실습을 나오는 의학과, 치의학과, 간호학과 학생들을 위한 교육실, 회의실, 도서관 등이

필요하고 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교육자들이 있어야 한다. 대학병원에서는 병원 직원들도 함께 교육해 환자에게 친절을 베풀고, 스스로 대학병원에 근무함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교육과정도 필요하다. 특히 환자와 환자 보호자를 위한 교양강좌 혹은 건강강좌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질병을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연구를 시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IT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라 중의 하나이다. 향후에는 평균 수명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BT, 특히 HT(Health Technology)가 가장 유망한 분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진단법과 치료기술을 개발해 환자 치료에도 도움을 주고 국가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을 연구 중심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연구중심병원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서 필자는 2008년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심장질환 특성과 연구센터를 지정받았다. 대학병원에서 심장병 환자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심장병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의료기술을 연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이다. 예를 들어, 환자를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심장병 환자를 진단하는 심전도, 심장초음파, 진단상 단층촬영기, 혈관촬영기 등과 치료하는 약제, 스텐트, 심박동기 등을 개발 연구하는 것이다. 현재는 우리나라 환자의 심장병 치료에 이용되고 있는 기계, 약제, 기구 등은 모두 선진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러한 약제나 기구는 앞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면 더욱 많은 수요가 예상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개발연구가 필요하다. 여기에 우리 지역에서 수년 전부터 노력하고 있는 국립심혈관센터 유치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사안이다. 이 같이 대학병원의 올바른 미래 기능은 환자 진료는 물론 우수한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훌륭한 연구를 진행해 국가 경제와 발전에도 기여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전남대병원 교육연구소장·순환기내과 교수>

아동 범죄자 학교에 발발 불이게 부모·교직원 관심 가져야

학교교육에 참여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배우는 즐거움, 가르치는 보람, 보내는 기쁨이 있는 공동체가 넘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지역 교직원과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내실 있는 학습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따금 안타까운 아동범죄에 대한 보도를 접하면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안

타까운 마음이 먼저 든다. 원 스톱(ONE-STOP) 지원센터의 통계에 의하면 아동 성범죄 발생은 지난해 대비 23%, 폭력·갈취는 27% 증가했다고 한다. 이 같은 이유로 우리 부모들과 교직원들은 건강하게 성장해야 할 아이들에게 평생 상처를 줄 수 있는 범죄자들이 학교에 발발하지 못하도록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이들이 안전한 사회에서 즐겁게 학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길은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민들과 학부모 모두의 몫이다. 특히 학교에 내실있는 교육이 가장 큰 범죄 예방의 지름길이고,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나는 농성초등학교 배움터지킴이로서 아이들의 생활 안전과 학습효과를 높이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 본다. ▲정순용·농성초교 배움터지킴이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6메일 opinion@kwangju.co.kr

無等鼓

"지난날 그렇게 슬프던 이별이 이제는 눈부신 자유를 뜻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체감한 희곡이었다. 이제 고독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나의 힘이다" 등반계의 '살아 있는 전설' 라인홀트 메스너는 1970년 동생 권터와 남가르프(8,125m) 루팔벽 정상에 오른다. 하지만 하산하다 동생을 잃고 혼자 살아남는다. 그때 '검은 고독'이 엄습한다. 3년 뒤 다시 그 산을 찾았지만 자괴감과 무기력을 이겨내지 못한 다. 1978년에야 동생을 잃었던 디아미르브를 통해 단독 등정에 첫 성공, 알파니즘의 새 장을 연다. 지난해 마나슬루(8,163m) 등반 도중 숨진 동료 2명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원정에 나선 영호남 산악인들이 7,500m 지점에서 고 박행수(당시 29세·광주대0B) 대원의 시신을 찾아냈다. 희박한 공기 속에서 고소 캠프들을 오가며 10여일간 수색을 펼친 끝에 얻은 성과다. 수직 설벽에서 이뤄진 운구작업은 대

원들에게 또 다른 도전이었다. 폭설이 내린데다 얼고 녹기를 반복한 시신과 특수장비 무게까지 합치면 하중이 만만치 않았을 터이다. 이송 중 훼손을 막기 위해선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만 했다. 천천히의 '살아 있는 전설' 라인홀트 메스너는 1970년 동생 권터와 남가르프(8,125m) 루팔벽 정상에 오른다. 하지만 하산하다 동생을 잃고 혼자 살아남는다. 그때 '검은 고독'이 엄습한다. 3년 뒤 다시 그 산을 찾았지만 자괴감과 무기력을 이겨내지 못한 다. 1978년에야 동생을 잃었던 디아미르브를 통해 단독 등정에 첫 성공, 알파니즘의 새 장을 연다. 지난해 마나슬루(8,163m) 등반 도중 숨진 동료 2명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원정에 나선 영호남 산악인들이 7,500m 지점에서 고 박행수(당시 29세·광주대0B) 대원의 시신을 찾아냈다. 희박한 공기 속에서 고소 캠프들을 오가며 10여일간 수색을 펼친 끝에 얻은 성과다. 수직 설벽에서 이뤄진 운구작업은 대

하안 고독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李庚完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대표 FAX 222-649> 여론매체부 2200-621 <대표 FAX 222-612> 체 육 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대표 FAX 222-616> 조 사 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 산 팀 2200-685 <대표 FAX 222-4918> <대표 FA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이케팅부 227-9600 독자서비스부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지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